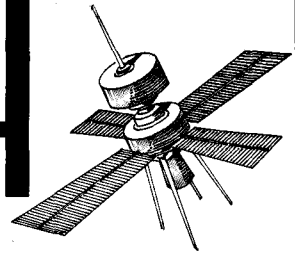


# 이달의

# 인테니



盧 永 翰  
(본지 편집국장)

## 소비자가 원하는 계란

지난 4월 9일 소비자를 대표하는 주부 클럽연합회(회장 김천주)에서는 세균에 오염된 생란의 위생실태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다. 이날 회의자료내용이 TV 및 일간지에 보도되었고 협회에서는 바로 대책회의와 전국 양계인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이 우송 되었다.

계란하면 귀한 식품이고 귀한것 중의 귀한 것을 계란 노른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계란은 귀한것의 대명사 이었다. 그러나 70년대 양계산업의 발전으로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대중식품화 되었고, 이제 계란의 품질 그중에서도 위생문제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게된 것은 생산자 입장에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소비자들이 계란을 안먹겠다는 것이 아니고 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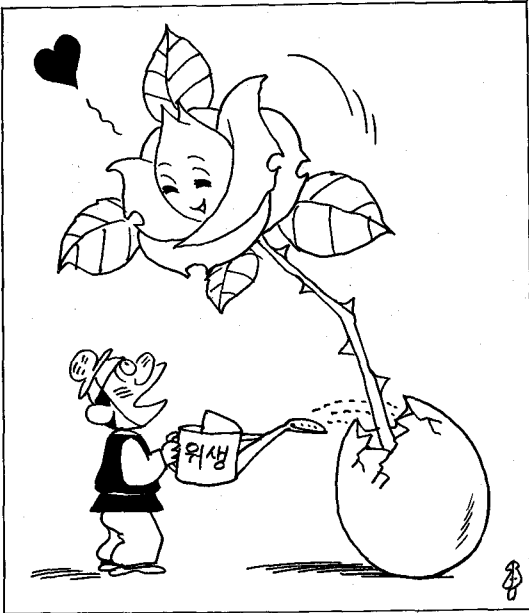
끗이 해서 기분 좋게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는 소비가 신장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식란보다도 제과용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빵을 먹다보면 계란껍질이 나오는 등 별로 즐겁지 않은 경험을 하게되어 제과용 계란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느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소비자들의 요구중 생산자들에게 해당 되는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 계란에 오물(닭똥 등)이 많이 묻어 세균 오염이 극심하니 위생적으로 처리된 식란을 생산일자, 등급표시 등을 하여 공급하고,
- 둘째 : 난좌가 불결하여 세균 오염이 극심한데도 세척과 소독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으니 1회용 난좌의 사용 등 포장용기를 개선 하고,
- 셋째 : 유통이 불합리하여 생산농가에서 일반소비자에 도착하기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신선도가 의심되니 유통기간의 단축과 저온 유통체제를 확립하여 줄 것 등이다.

이날 모임이 각종 매스컴에 보도가 되어 계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등 양계업자에게 가시가 되어 우리를 찢러 아픔은 있었지만, 가시만 보지 말고 그위에 피어날 장미꽃을 보고 양축가들이

노력한다면 전회위복의 기회가 될줄로 생각한다.  
가시가 없는 벌레먹은 장미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다.



## 지구촌은 한가족

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사고로 온 세계가  
야단이다.

소련은 물론이지만 인근 폴랜드는 착유한 우  
유를 시판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고 몇몇 나라  
는 상당한 기간 토양오염으로 낙농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니, 그곳 낙농업자들의 심각한 형  
편을 감히 짐작할만하다.

얼마전 국내에서도 분유재고 누적으로 우유  
대금 지급을 못해 젖소값이 떨어지는 등 낙농업  
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터에 폴랜드 낙농업  
자 걱정하게 되었느냐고 하면 할말이 없지만 그  
게 그렇지가 않다.

이번 사고로 소련은 대니버강(Dnieber)의 수  
원인 호수가 오염되어 소련의 곡창지대 우크라이  
나 지대의 관개수로는 물론 흑해에 이르기 까  
지 상당기간 관개수를 사용하기가 어려울것으  
로 외신은 보도하고 있으며 토양의 오염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카고 곡물시장의 곡물가격이 연일 상종가로  
폭등하여 거래가 정지되고 미국의 농민들은 이제  
불황은 지나갔다고 환호하고 있다는 보도는 소련  
의 이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소련에 국한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시골에 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벌써 곡물과 함께 축산물 가격이 미국 등 외국  
에서 폭등하고 있다는 보도는 세계가 참 좁아지  
고 지구는 한가족임을 새삼 느끼게 한다.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는 말이 있다.

소련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미국의 사료곡물과 축산물가격을 폭등시켜 곡물수입국인 한국의 외환수지를 악화시키고 국내 식료품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문다. 한때는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몸살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소련의 원자력 발전소까지 걱정하게 되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우리도 이번 기회에 국내 축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해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연구와 제도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획일화되고 경직된 제도에서 어떻게 외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는가?

## 말 한마디가 업계를 살린다

우리는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휴전후 수도 서울이 폐허가 되어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한강 인도교가 자살 장소로 많이 이용된 때가 있었다. 당국에서는 할 수 없이 한강인도교에(당시는 한강의 강나루에 광진교와 현재의 제일 한강교 둘밖에 없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란 팻말을 붙여 놓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팻말을 보고 한강에까지 왔다가 되돌아갔다는 말을 어려서 들은 기억이 난다.

어떤 사람은 산다는 것이 너무도 힘들어 몇달



을 생각한 끝에 한강으로 나갔는데 고개를 땅에 떨어뜨리고 가느라 팻말을 보지 못하고 물속으로 뛰어들려다 보니 푸른물이 두렵기도 하고 죽을 용기를 갖고 한번 살아보자고 마음을 고쳐 먹고 되돌아 가다 팻말을 보았다고 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렇지 내가 몇달을 생각한 끝에 죽기로 결심한 것인데 시퍼런 강물이 무서워 죽지 못하다니 하고 뛰어내려 죽었다는 말도 들었다.

같은 말 한마디 이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위력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육계도 그렇고 산란계도 그렇고 불황이 장기화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도산하는 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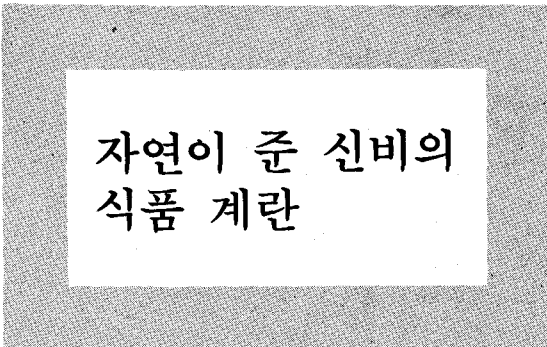
불황이 예상되니 생산조절을 하자는 한마디를 그대로 믿고 지키면 살고 남이 안할때 이때다 하고 생산을 늘리면 죽는다. 방역문제도 마찬가지다. 뉴캐슬 발생경고가 발령되었을때 백신을 하면 살고, 늑대 나온다는 이솝우화 정도로 생각하고 버티면 큰 손실을 당한다.

난좌개선 문제가 그러하였고 사료품질 문제가 그러하였었다.

부로일러의 경우에 전체의 흐름에 어둡고 정보가 없기 때문에 상인들의 말한마디를 잘못 듣고 큰손해를 보거나 심한 경우 도산하는 경우가 있다.

채란양계도 계우회에라도 가입을하면 바른 정보를 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영세 양축가들이 문제가 된다. 못살겠다 때려 부수자는 레닌의 한마디가 소련을 죽였고 자연이 준 신비의 식품계란이란 AEB(미국 계란협회)의 한마디는 양계산업을 회생시키고 있다.

바른말, 업계를 살리고 개인을 살리는 말한마디를 올바르게 알아듣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육계 좌담회의 결론이었다.



지난 4월 19일 한국영양학회(회장 김숙희 교수)총계 심포지움에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학회 이름으로 한국인을 위한 식사지침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굉장히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잘알고 있으면서 시행이 어려웠던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자.
2. 정상 체중을 유지하자.
3.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자.
- 4 지방질은 총열량의 20% 정도를 섭취하자.

5. 우유를 매일 마시자.
6. 짜게 먹지 말자.
7. 치아 건강을 유지하자.
8. 술, 담배, 카페인음료 등을 절제하자.
9. 식생활 및 일상생활의 균형을 이루자.
10. 식사는 즐겁게 하자 등이다.

이중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3번째의 단백질의 충분한 섭취이다. 특히 설명에서 계란을 단백질 식품의 대표로 했다는 점이다.

다음 표를보면 계란이야말로 완전한 가까운 식품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또 이날 발표에서 연사는 계란은 우유, 간(肝)과 함께 영양학자들로부터 신비의 3대 식품으로 불려지고 있다고 했다.

과연 우리나라 주부들이 계란에 대하여 이들



곡류의 아미노산 조성과 아미노산가

곡 류	라이신	아미노산(mg)/N(g)			제 한 아미노산	아미노 <sup>1</sup> 산가 (계 란)	아미노 <sup>2</sup> 산가 (FAO/WHO)
		메치오닐과시스틴	트레오닌	트립토판			
백 미	226	229	207	84	라이신	52	66
보 리	216	246	207	96	라이신	50	64
밀가루(흰색)	130	250	168	67	라이신	30	38
통 밀	161	219	177	66	라이신	37	47
옥수수가루	167	217	225	38	라이신	38	49
호 밀	212	210	209	46	라이신	49	62
수 수	126	181	189	63	라이신	29	37
귀 리	232	272	207	79	라이신	53	68
기 장	214	302	241	106	라이신	49	63
계 란	436	362	320	93	-	-	-
FAO/WHO 1973	340	220	250	60	-	-	-

1. FAO(1970)로부터 얻은 자료임. 2. FAO/WHO(1973)

단백질의 영양가를 측정하는 여러 방법들간의 비교

식 품	생 물 가 (BV <sup>1</sup> )	단 백 효 율 (PER <sup>1</sup> )	순 이 용 율 (NPV <sup>1</sup> )	FAO 값	
				1970 <sup>1</sup>	1973 <sup>2</sup>
쌀	64.0	2.18	57.3	56	66.5
밀	64.7	1.53	40.3	44	52.6
콩 류	58.0	1.48	38.4	34	54.1
옥 수 수	59.4	1.12	51.1	41	49.1
귀 리	64.9	2.25	65.7	57	68.2
땅 콩	54.5	1.65	42.7	43	65.0
완 두 콩	63.7	1.57	46.7	37	57.7
참 깨	62.0	1.77	53.4	42	50.3
쇠 고 기	74.3	2.30	66.9	69	100.0
계 란	93.7	3.92	93.5	100	100.0
생 선	76.0	3.55	79.5	70	100.0
우 유 유	84.5	3.09	81.5	60	94.5
우 유 단 백 질 (카 제 인)	79.7	2.86	72.1	58	91.4

1. BV<sup>1</sup> (biological value), PER (protein efficiency ratio), NPU (net protein utilization), FAO 값 (1970, FAO로부터 수집된 값)에 의한 자료임.  
2. FAO 값 : FAO(1973)에서 권장하고 있는 아미노산 조성.

영양학자들이 알고 있는 것의 몇분의 일이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며 이런 이유 때문에 소비자 교육은 필요한가 보다.

그러나 5번째 우유를 매일 마시자는 항목은

있으면서도 계란은 빠져 있어 서운하기 그지 없다.

매일 우유와 계란을 먹으면 더욱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을터인데 말이다.